



나눔으로 행복하게!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Monthly 나눔과행복소식 (31호)

매일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을 묶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루가 쌓여 계절이 되고,
계절이 쌓여 기록물이 될 것입니다.

2024.11

미션
MISSION

사랑으로 봅니다

모든 중심에 사람이 있는 세상, 사람을 봅니다.

비전
VISION

비전 2025

정직한 의료와 최적의 치료로 사랑받는 병원, 나눔과 행복

핵심가치
CORE VALUE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공정함

사람을 대함에 있어
공정함을 유지하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진정성

진정성을 담아 말하고
행동하는 사람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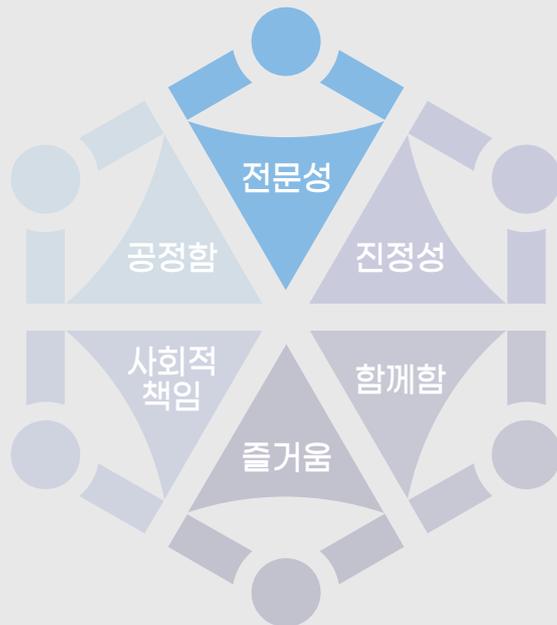
즐거움

과정을 즐기고 보람을 느끼며
자아를 실현하는 사람

전문성을 근간으로 진정성을 담아, 공정함으로 대하고 함께함을 느낄 때, 사회적책임과 즐거움이 실현되는 곳!

전문성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우리가 깊어지는 시간 2024 2024 OKR 파티

(11.23 / 11.26 / 11.27)

재활의료, 통합의료, 경영지원에서 올 한해 OKR에 대한 도전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과정에 대한
격려와 감사, 칭찬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고의 전문성을 지향하며 노력하고 성장하는 사람

슬기로운 재활생활 교육 프로그램



침상 자세, 트랜스퍼, 욕창·감염관리

: 간호팀 김경희 부팀장 (11/13)

11월에는 간호팀 김경희 부팀장님께서 재활과정에서 필요한 건강관리 방법에 대해 교육해주셨습니다. 병실에서 유지할 수 있는 침상 자세에 대한 설명, 트랜스퍼 영상을 통해 안전하게 옮겨 앉는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숙지할 수 있었습니다.

또 낙상이 발생하기 쉬운 상황에 대한 예시를 통해 참여자, 보호자가 서로의 입장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점검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재활 중 영양관리의 핵심 : 단백질 섭취

: 영양팀 김정희 팀장 (11/13)

간호팀 강의에 이어 영양팀 김정희 팀장님께서 '단백질 섭취'에 대한 교육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몸의 근력을 유지하기 위한 몸의 구성 성분인 단백질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동물성, 식물성 단백질의 종류, 어떤 단백질을 섭취하는 게 좋을지, 매일 섭취해야 하는 권장 단백질량에 대해 인식할 수 있었고 올바른 식습관 유지 및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장애 이해와 수용

: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서민우 강사 (11/20)

슬기로운재활생활 6회차, 부산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서민우 강사님께서 '장애 이해와 수용'에 대해 교육해주셨습니다.

장애 이후 직장, 운동 등의 삶의 과정에서 장애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함, 장애 수용 과정에서 마주한 심리적 변화 등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참여자와 보호자에게 긍정의 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민·관 합동소방훈련 (11.08)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SNS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7층 생활재활센터 휴게실에 집결하여 주의사항 및 사전훈련을 실시한 후 해운대소방서 참관하에 분훈련을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9층으로 자리를 옮겨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법에 대한 실습을 하였습니다.



신입직원 4기 북토크 (11.08)

두 번째 만남, 백선미 병원장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스몰 북토크'가 진행되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책자의 마지막에는 '사람 사는 모양은 같을 겁니다. 다친 삶이나 안 다친 사람이나 장애인이나 비장애인이나 살아가면서 어려운 점, 힘든 점 다 같습니다. 뭐, 특별할 게 있겠습니까. 그냥 평범합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 해나행에서 함께하는 수습기간이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길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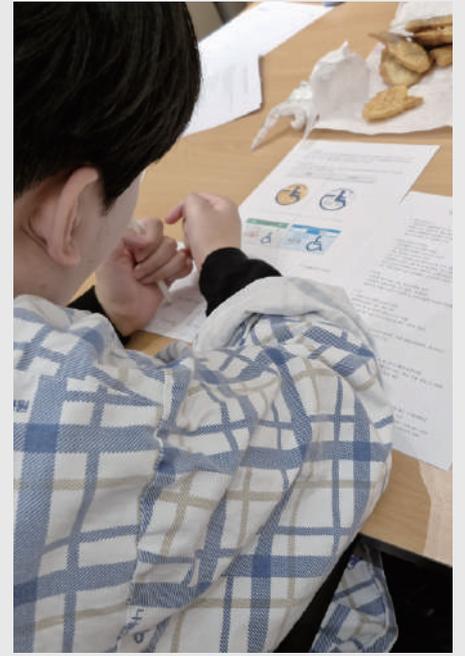


척수이야기 (11.11)

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외박이나 퇴원 이후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이동권을 빙고를 통해 알아보고 소정의 상품도 전달했습니다.

이동에 대해 생각이 많아져서 어디를 가기가 힘들었다면 이번시간을 통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휠체어스쿨 (11.04)

지난시간에 배웠던 휠체어밀기와 회전을 복습을 하였고 경사로와 횡경사에서 이동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경사로에서 휠체어가 기울어지기 때문에 오르고 내릴 때 무게중심과 손의 위치를 살펴보았습니다. 처음이신데도 잘하셨지만 반복연습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김OO님 휠체어바이크가 오늘 와서 탈부착을 하셨는데 어려움이 있었는데 손잡이 부분을 풀어서 조정하니 탈부착 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졌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벼운 경사로에서 어려움 없이 통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밖으로 한걸음씩 (11.04)

이OO님과 박OO님은 운전면허 조건변경을 위해
성OO님은 운전면허취득 과정인 필기시험을 보기 위해
남부운전면허시험장에 다녀왔습니다.

참여자 분들 모두 편마비라 운전할 때 편마비가 아닌 쪽을
사용하여 운동능력평가를 진행했었는데 모두 통과하셨고
필기시험도 합격하였습니다.

성OO님은 장내기능교육일정을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이OO님은 국립재활원 도로연수교육을 신청하였는데
연락이 와서 교육을 받으려고 합니다.



집단상담 프로그램 '마음톡톡' (10.31)

10월 10일(목) 마음톡톡 3회차 첫 시작, 다 함께 모여
다람쥐, 유모델, 산수박사, 함박웃음, 개나리, 장미, 국화,
사랑, 하얀 마음, 잠자리, 꿀통 등 나의 별칭을 지었습니다.

발병 후 병원에 오게 된 과정부터 지금까지 겪었던 심리적
어려움, 가족에게도 말하기 어려웠던 이야기, 말로 표현하지
못했던 마음을 들여다보고 함께 위로를 건네고, 울고 웃으며
위로를 얻기도 하는 따뜻한 시간으로 채워나갔습니다.

마음톡톡 마지막 날, 2회차 집단을 초청하여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2회차 집단원 중 (사)나눔으로행복한동행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한 분이 있어 공사 전후 환경을 공유하고
집단원과 노하우를 나누며 퇴원 후 준비해야 하는 자원,
환경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볼 수 있었습니다.

서로의 응원과 지지 속에서 더 알찬 희망의 열매가 맺히길
고대하며 특별했던 마음톡톡 3회차 마무리 했습니다.





일상재활센터(낮병동) 출석왕·자립왕 시상식 (11.08)

매달 한번씩 다가오는 행사인 6층 일상재활센터에서 주관하는 낮병동 월간 우수 출석왕·자립왕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번달 출석왕에는 남○○, 한○○님이 수상하셨고, 자립왕에는 류○○, 이○○님이 수상하셨습니다.

낮병동 참여자분들의 재활을 독려하기 위한 자리이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의미있는 경험이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나 스스로 한다'라는 자립활동을 통해 참여자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 성취감을 느끼고, 가정과 사회에서 스스로의 역할을 찾아가는 모든 참여자분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16대 꿀꺽왕 시상식 (11.05)

재활 2팀 연하파트에서 [연하치료 종결 참여자 상장 수여하기] TF를 구성하여, 참여자분들이 안전하게 식사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삼킴 기능이 향상되어 연하치료를 종결하게된 분들을 기념하고자 "꿀꺽왕"이라는 타이틀과 함께 상장을 수여하고 연하치료실 명예의 전당에 명패를 올리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16대 꿀꺽왕은 권○○님이 선정되었고, 개인사정으로 인해 시상식은 따로 진행하지 않고 명예의 전당에서 사진을 남기셨습니다.

명패를 직접 걸어보시더니 "명예의전당에 본인 이름 석자를 걸고 싶었는데 드디어 명패를 걸어보게되어 감사하다"라고 소감을 전하셨습니다.



2024년 11월 손위생 수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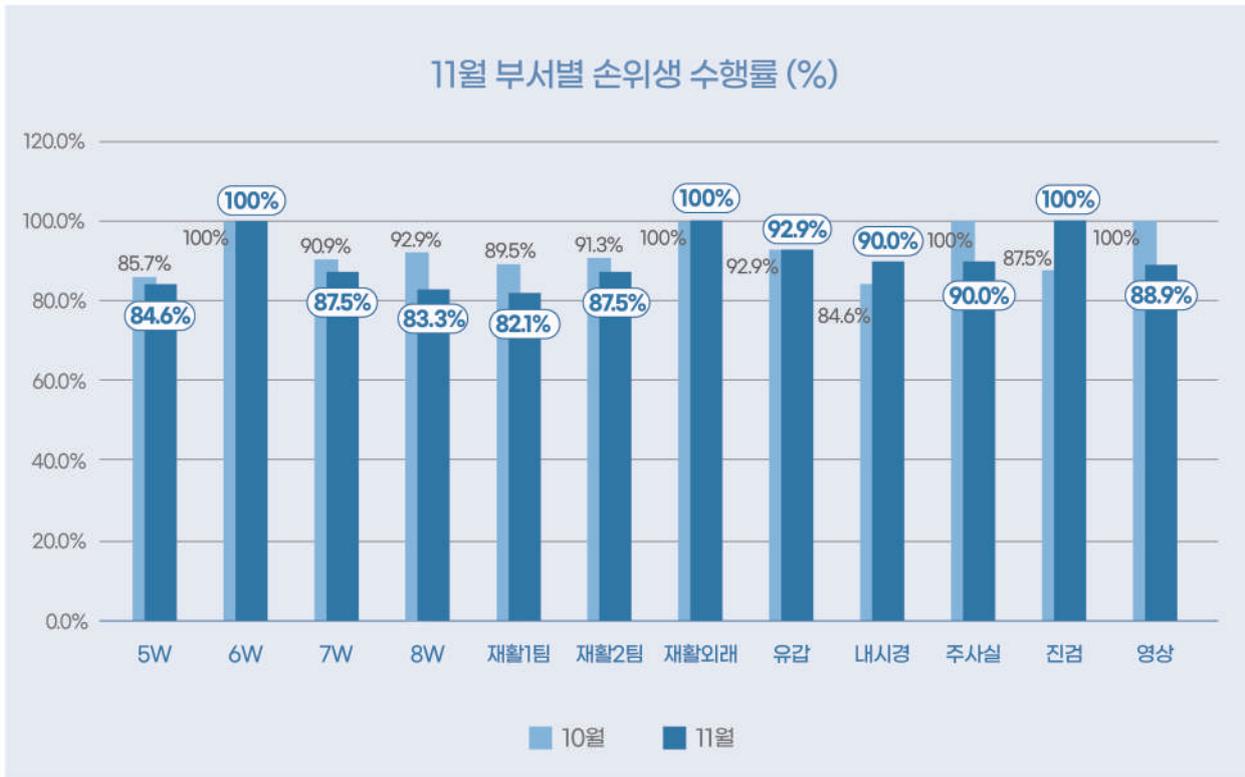
1. 손위생 수행률 결과

모니터링 기간	2024년 11월 01일 ~ 2024년 11월 30일
모니터링 장소	환자 접점 부서
모니터링 방법	직접 관찰(손위생 실무 요원 및 감염관리전담간호사)
손위생 수행률(%)	실제 손위생 수행 건수/손위생을 해야 하는 행위 건수 X 100
모니터링 결과	2024년 10월 결과와 비교 분석

2. 지표 결과

목표(%)	전체 관찰건수(건)	수행건수(건)	결과(%)	전 분기 증감률
90	167	149	89.2%	-2.7%

3. 부서별 손위생 수행률



경제적 문제 해결을 통해 재활치료를 지속하다

참여자 한OO님은(60대) 뇌출혈로 인한 실어증, 우측 편마비, 인지기능 장애 치료를 위해 본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재혼 가정으로 친아들, 마음으로 낳은 자녀와 함께 생활하였으나 1년 전 배우자와 사별 후 30년간 양육해왔던 아들이 갑작스레 연을 끊었고, 참여자는 충격으로 뇌출혈이 발병하였습니다.

한OO님은 충격으로 실어증과 우울증이 함께 나타나 첫 상담 시 신체적, 정신적으로 지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또한 친아들 모두 가게를 운영하였지만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부채가 쌓이며 가게를 정리하게 됐고 참여자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병원비와 부채를 갚아나가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회사업팀에서는 참여자가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을 권유드렸고 기초생활수급자(의료급여 1종)로 결정되어 의료비(급여항목) 부담을 낮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명나눔실천본부 의료비 지원사업, 휠체어 지원사업 신청을 통해 복지용구의 지원과 비급여 항목에 대한 의료비와 부담을 줄임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재활치료를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립생활을 목표로 퇴원준비를 시작하다

한OO님은 자녀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자립생활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셨습니다.

자택 복귀 후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위해 낮 동안 돌봄이 가능한 기관을 탐색하였고 외박 시 이동이 어려웠던 부분에 대해 사진을 찍어 오시면 함께 환경을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보행이 가능하셔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활용하여 현관 입구, 화장실에 안전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내드렸습니다. 그리고 참여자 거주지 지역사회자원을 파악하여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취미생활을 위한 복지기관을 연계해드렸습니다. 현재 자택으로 복귀하여 본원 방문재활 서비스와 외래치료를 통해 일상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입원 초기부터 자립생활이라는 목표를 향해 쉽 없이 달려오신 한OO님의 끈기와 노력에 큰 박수를 보내며 한OO님의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참여자 주요 사항

		성별	나이	보호유형	대상질환	발병일	입원기간
참여자 사항	대상	여성	60대	의료급여	뇌손상	2023.01.	2023.03 ~ 2023.11
	가족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형태 : 독거 가구 ■ 주보호자 : 아들 					
	심리·사회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와의 단절로 인한 우울감 					
	경제적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 사업으로 인한 부채, 치료비 부담 호소 					
	주거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거형태 : 주택 ■ 주거환경 : 현관 및 화장실 단차로 이동 어려움 					
	문제사항 및 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준비된 퇴원을 통한 안전한 자택 복귀 희망 ■ 재활치료 지속 및 간호 관리 					
사회복귀 지원 프로그램 및 서비스 연계	사회복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원경로 : 자택 ■ 치료계획 : 본문 방문 재활 ■ 이동수단 : 아들 소유 차량 및 택시 					
	참여 프로그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담 : 슬기로운재활생활 PG ■ 정서지원 : 이벤트, 웃음치료 PG ■ 청결지원 : 이미용 서비스 					
	지역자원 안내 및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안내 ■ 생명나눔실천본부 의료비 및 휠체어 지원 ■ 부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를 통한 보건소 CBR사업 연계 (방문간호, 방문재활) 					



함께함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수능자녀 선물지원 (11.12)

해나행 가족으로서 수능자녀를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두바이 초콜릿'을 선물하였습니다.

수능 자녀를 응원하는 마음과 더불어 그동안 수고한 해나행 가족들 모두에게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출산예정 직원에게 드리는 출산휴가 선물



재활치료1팀 배강림 주무 (11.12)



재활간호팀(8W) 김지연 팀원 (11.12)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이벤트 프로그램

크리스마스 우드집 트리 만들기 (11.28)

11월에는 크리스마스 우드집 트리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캐롤송으로 프로그램 시작을 알리고 크리스마스의 추억을 나누며 아이스브레이킹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자 직접 또는 보호자 도움 하에 우드집에 산타, 루돌프, 벽난로, 창문 등을 장식하여 무드등의 분위기를 한껏 살려보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11월의 신규입사자



영양팀 조민아 조리원



재활간호팀(5W) 안창식 팀원



건강증진팀 이다해 팀원



재활간호팀(5W) 노수민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유규민 간호사



재활간호팀(8W) 이선주 간호사

너와 나, 이 만남을 위해
우리는 오랜 시간 서로를 향해
마주 걸어오고 있었다.



— 박노해《걷는 독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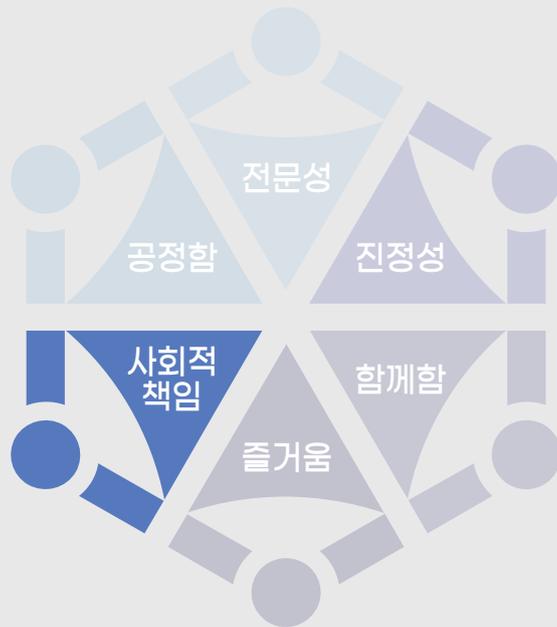


열린 소통, 배려, 공감으로 함께 나아가는 사람



사회적책임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





나눔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 구축,
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신영증권이 함께합니다.

계획 기부 및 기부신탁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25)

사단법인 나눔으로행복한동행(이하 "나눔으로행복한동행")과 신영증권 주식회사(이하 "신영증권")는 대한민국의 성숙한 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부 문화를 체계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두 기관이 각자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계획 기부 및 기부신탁 활성화를 목표로 협력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기부신탁은 위탁자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자산을 금융기관에 맡기고, 생전에는 운용 수익을 받으며 사후에는 지정된 기부처에 기부하는 방식으로, 유언장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가지며 맞춤형 금융 솔루션과 기부 설계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나눔으로행복한동행은 중도장애인을 위한 사회복지 지원, 지역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장애인들의 자립과 행복을 돕는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계획 기부자 발굴과 기부신탁 프로그램 운영을 주도할 예정입니다. 신영증권은 기부자의 자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실무적 지원을 통해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기여할 계획입니다.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나눔과 금융이 결합된 새로운 모델을 구축하며, 기부문화 확산과 공익적 가치 창출을 위한 모범 사례를 만들어갈 전망입니다.





이미용 서비스 (11.19 / 11.29)

사회사업팀에서는 입원 참여자의 일상생활 편의를 위해 매월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명의 전문자원봉사자께서 참여자를 위해 약속된 시간에 방문하여 재능 나눔을 통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고 계십니다.

이번 달에는 총 72명이 신청하여 이미용 서비스를 받으셨습니다.

나눔,

나눔다는 것은 마음을 건네는 것입니다.

행복을 자랑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 속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객관적 행복이 아닌
작아도 재능나눔을 통해 상대방과 함께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마음을 건네어 봅니다.

마음을 나누어 봅니다.



마음을 전하다.

환자 보호자분이 카톡으로 남겨주신 글입니다. (11.14)

혼자 남아서 자꾸 읊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11월7일에 백선미 선생님께서 고주파열시술을 받은 이○○ 환자의 엄마입니다. 처음 초음파에서 암이 발견됐을 때 하염없이 울던 딸, 세침검사에서 암진단을 받은 딸이 '내가 암이라니...' 하고 말했을 때, 그저 '괜찮을 거다, 다 괜찮을 거다'고 달랬지만, 너무 막막하고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큰 병원으로 전원 되고, 갑상선 반절제와 임파선 절제 수술을 예약해두고, 두 달 기다리는 동안 정신이 없는 와중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인터넷을 뒤지다가 '해운대 나눔과 행복병원 백선미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감사의 글을 쓰고 싶은데요. 잘 할 줄 몰라서 끊겨서 글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막눈인 제 눈에도 쫓끄만 암덩어리가 이미 경계를 넘은 거 같고, 성대신경과 가까워보여서, RFA 기준이 안 될 거 같아서, 어떻게 선생님께서 매달려서 시술을 받을 수 있을지 고민하느라, 초음파 예약 날까지 기다리는 동안,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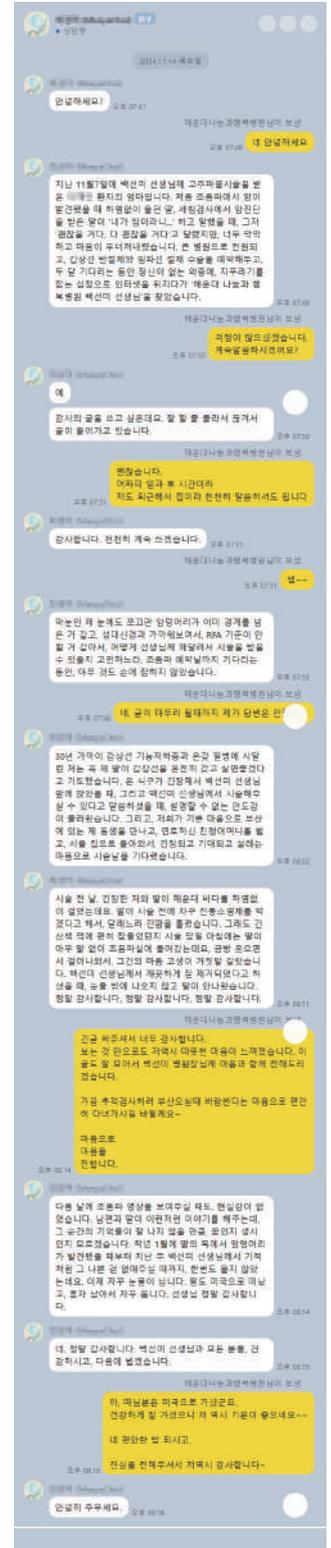
30년 가까이 갑상선 기능저하증과 온갖 질병에 시달린 저는 꼭 제 딸이 갑상선을 온전히 갖고 살면 좋겠다고 기도했습니다. 온 식구가 긴장해서 백선미 선생님 앞에 앉았을 때, 그리고 백선미 선생님께서 시술해주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을 때,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기쁜 마음으로 부산에 있는 제 동생을 만나고, 연로하신 친정어머니를 뵙고, 서울 집으로 돌아와서, 긴장되고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으로 시술날을 기다렸습니다.

시술 전 날, 긴장한 저와 딸이 해운대 바다를 하염없이 걸었는데요. 딸이 시술 전에 자꾸 진통소염제를 먹겠다고 해서, 달래느라 진땀을 흘렸습니다. 그래도 긴 산책 덕에 편히 잠들었던지 시술 당일 아침에는 딸이 아무 말 없이 초음파실에 들어갔는데요, 금방 웃으면서 걸어 나와서, 그간의 마음고생이 거짓말 같았습니다. 백선미 선생님께서 깨끗하게 잘 제거되었다고 하셨을 때, 눈물 밖에 나오지 않고 말이 안 나왔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날에 초음파 영상을 보여주실 때도,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남편과 딸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순간의 기억들이 잘 나지 않을 만큼,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1월에 딸의 목에서 암덩어리가 발견됐을 때부터 지난 주 백선미 선생님께서 기적처럼 그 나쁜 걸 없애주실 때까지, 한 번도 울지 않았는데요. 이제 자꾸 눈물이 납니다. 딸도 미국으로 떠났고, 혼자 남아서 자꾸 읊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감사합니다.

백선미 선생님과 모든 분들, 건강하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백선미 보내기

완료

참여자 분들께서 요청해주신 메뉴를 선정하여 정성껏 차려드립니다.

‘나행밥상’은 매일 참여자분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원하시는 메뉴를 선사합니다.

꼬막비빔밥

제철에 먹는 음식은 보약과 같다

오늘은 딱 제철 맛은 보약 같은 음식, 한껏 살이 차오른 꼬막을 이용한 비빔밥을 요청 메뉴로 선정해 보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이제 조개류 먹어도 되지 않아요? 새콤달콤한 맛으로 입맛 살리는 꼬막비빔밥 해 주세요”라는 요청을 심심치 않게 받았습니다.

이상 기후로 여전히 한낮 더위가 쉽게 물러나지 않아 혹시나 하는 노파심에 미루고 미뤘었던 메뉴를, 드디어 오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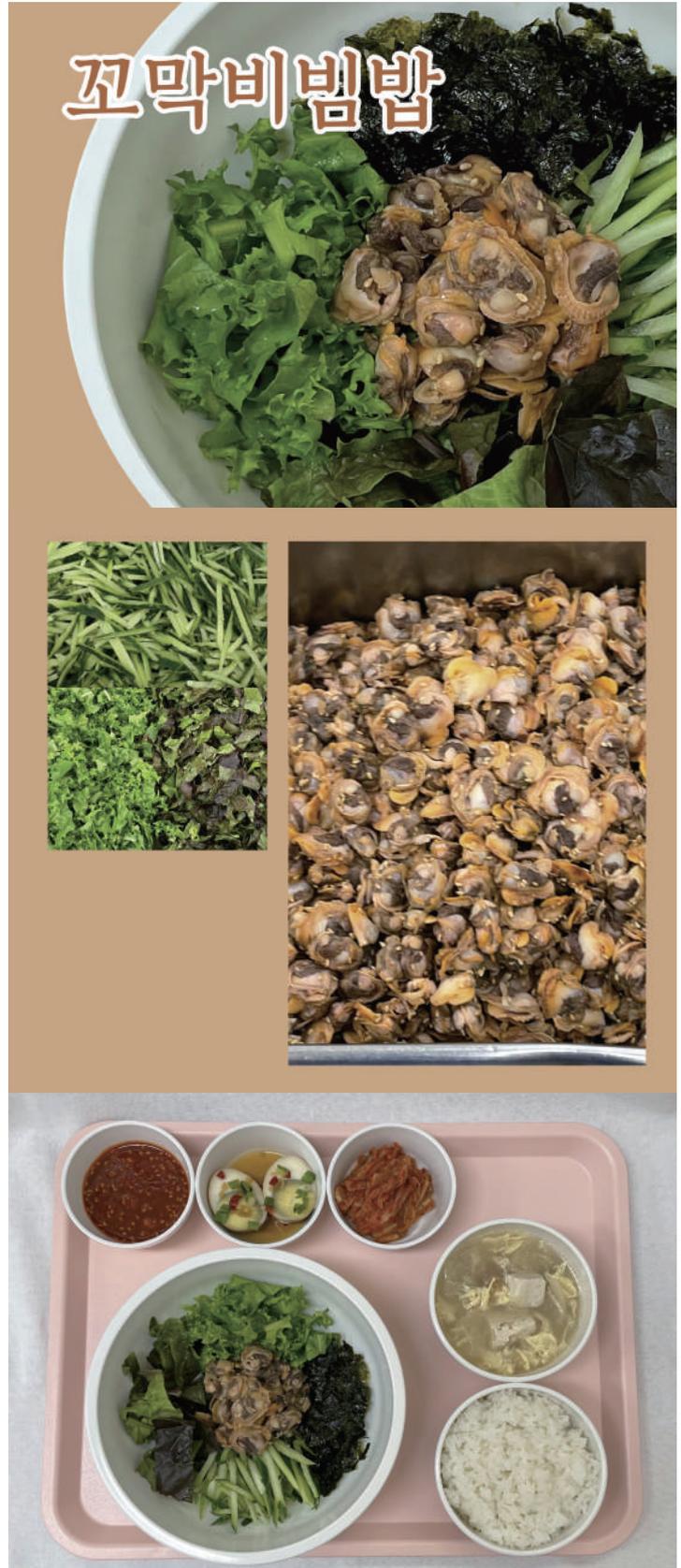
선선한 기운이 느껴지는 기분 좋은 가을날에 조심스럽고 맛깔나게 준비를 하였습니다.

쉬운 듯 쉽지 않는 꼬막 삶기를 무사히 완성하여, 싱싱한 생야채를 수북이 담아 그 위에 올리고, 잃어버린 입맛도 되살릴 새콤 달콤 양념장을 더해 조물조물 밥과 함께 비비면, 눈길을 땔 수 없는 환상적인 비빔밥이 완성됩니다.

더불어 꼬막에 들어 있는 양질의 단백질과 비타민, 빈혈 예방에 도움을 주는 철분과 각종 무기질도 듬뿍 담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잘나처럼 지나가는 천고마비의 계절인 가을을

영양팀이 준비한 맛과 함께 짧지만 긴 여운이 남는 날들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영양팀장의 말, 말, 말

카카오워크에서 전한 글입니다. (11.04)

“내 인생은...어떤 달걀에 좀 더 가까울까?”

나는 1번 달걀일까...

아니면 4번 달걀일까...

달걀 껍질에 찍혀있는 10자리 숫자 중에
사육 환경을 뜻하는 마지막 자리 숫자 1~4

- 1- 자연방사사육(동물복지)
- 2- 실내방사(동물복지)
- 3- 개선된 케이지
- 4- 기존케이지 사육

흔히 난각 번호로 불리는 마지막 자리 숫자와 관련하여, 이런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4번 달걀인줄 알았던 내 인생이 1번 달걀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다.“

자연 방사로 자란 닭이 낳은 유정란(1번 달걀)이 영양이 좀 더 풍부하여
비싸고, 한 뼘의 케이지 안에서 그 만큼의 삶은 사는 닭이 낳은 4번 달걀의 값이
가장 저렴합니다.

내 인생은...어떤 달걀에 좀 더 가까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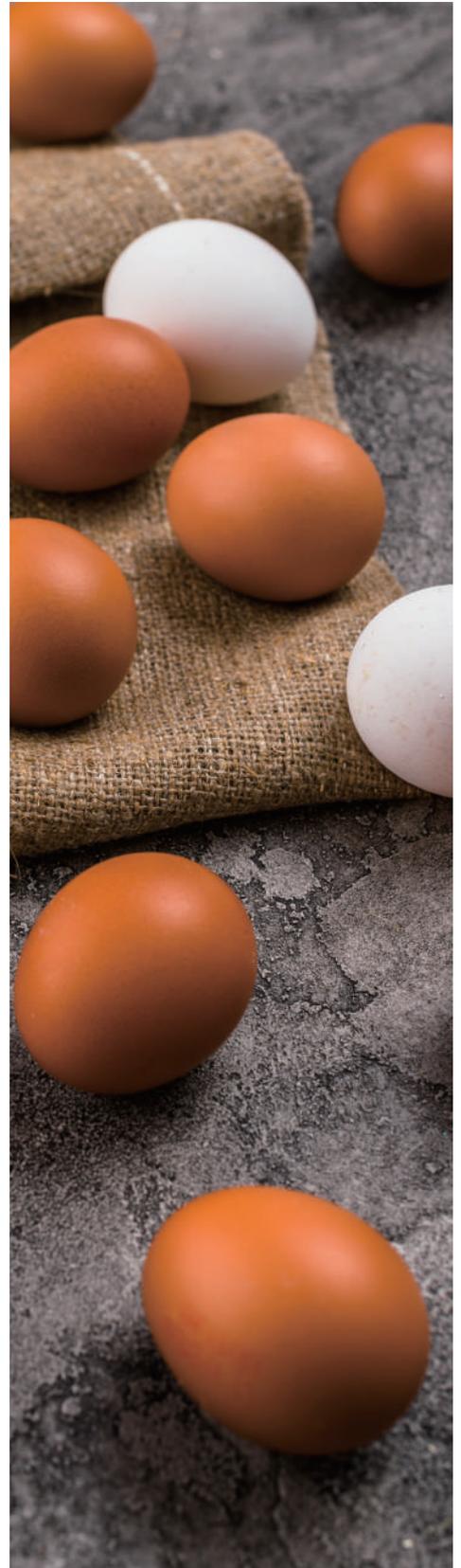
닭의 삶을, 달걀의 번호를, 그 값을 사람의 인생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내 생각이 뻑뻑한 케이지 안에 갇혀 제자리걸음만 하는 것은 아닌지,
더 넓게 보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내 생각을 가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내 잠재력을 묻어 두고 4번 달걀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달걀
번호를 보며 내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지, 점심의 특식을 기대하며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요?

지난 1일 우리 해나행은 13번째 생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생일을 기점으로,
4번 달걀에서 벗어나 3번 또는 2번 달걀로...그리고 1번까지 나아가길 기대해
봅니다.

우리 모두 1번 달걀이 되는 그날까지 ㅎㅎ

꼬끼오~꼬꼬덕~화이팅!



‘과정’이라는 선물

어색해하는 순간까지 다 포함된 선물이에요.

화훼단지에 주차를 한지 5분이 지났다. 쉽게 차문을 열고 나오지 못한다. 어떤 걸 골라야할지 폰으로 검색하고 있지만 어색하다. 빨간 장미의 꽃말이 사랑과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확인하고서야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 어색함을 애써 감추려고 한 손으로 스마트 폰을 만지며 쓸데없이 114를 누른다. 흘러나오는 자동음성에 마치 통화하기라도 하듯이 걸어간다. ○○○플라워, ○○난원, ○○꽃집, ○○이네 꽃 등 수십 개의 간판이 천장에 대롱대롱 걸려 있다. (이런, 꽃말은 검색했지만 화훼단지 내 꽃집 상호는 검색을 안했던 것이다.) 난생 처음 온 것이지만 자주 온 마냥 간판을 찾는 시늉을 해본다. 대충 5번째 꽃집을 지나서야 마치 이집이 맞는 마냥으로 이모에게 말을 건네 본다.

“이모~ 꽃다발 얼마지예?”

“삼촌예~ 어디 사용할라꼬?”

“아, 결혼 기념일이라서예....

그냥 빨간 장미로 10송이 해서 알아서 해주이소”

“이래저래 서까주까(섞어줄까)?”

“네, 알아서 하면 됩니더”

“포장은 비니루(비닐)로 할끼가? 종이할끼가?”

“몰라예 알아서 해주이소”

몇 마디 주고받은 뒤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질 일 없다는 생각에 다시 폰을 만지작거린다. 능숙한 손길의 이모는 빨간 장미 열 송이를 집어 든다. 가위는 아닌 듯 해 보이는 절단도구로 줄기를 적당히 자르고 빨간색과 잘 어울리는 작은 꽃들을 한 움큼 집어든다. 이래저래 꺾고 자르고 뜯고 만지더니 옆에 보기 좋게 올려놓는다. 베이지색 종이를 길게 펼치고 그 위에 정리한 꽃들을 올리더니, 돌돌 말아서 쓱쓱 쓱쓱 하니 꽃다발이 완성된다. 옆에 있던 아들로 보이는 총각이 카드단말기를 들고 내 앞으로 온다.

“30,000원인데 어무이가 10%깎아주라케서 27,000원 계산하시면 됩니더.”

“아~ 진짜예? 고맙습니데~”

계산 후 한 송에 꽃다발을 들고 마치 차안대를 찬 경주마처럼 오직 앞만 보고 그렇게 빠져나와 차에 앉았다. 무슨 큰일이라도 치른 마냥 깊은 한숨을 내뿜고 있었다. 깜짝 꽃다발 선물에 기뻐할 아내를 떠올리니 미소가 나오다가도, 또 이 꽃다발을 식당까지 들고 갈 생각을 하니 부끄러움에 걱정이 되었다. 차량 뒷좌석에 보니 둘째 녀석 카시트 앞에 마침 쇼핑백이 하나 있었다. 쇼핑백에 꽃다발을 넣으면 덜 부끄럽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세로고 깊은 쇼핑백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게 그렇게 크지가 않았다. 그래도 조심스레 담아놓고 나서야 폰으로 사진을 찍을 여유가 생겼다.

‘과정’이라는 선물

꽃을 선물 받는 건 남자가 꽃집에 가서 어색해하는 순간까지 다 포함된 선물이에요. 남자가 얼마나 큰 어색함을 무릅쓰고 꽃집에 갔을 거며 꽃을 사기까지 얼마나 민망했을 거예요. 그래서 꽃 선물은 꽃집으로 갈 때까지 여자를 생각하는 그 마음들이 담겨 있는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꽃 선물을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__오하림《나를 움직인 문장들》(자그마치북스)

내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한 다발의 꽃을 구매했으리라고 생각도 못할 아내다. 물건 살 때 흥정도 잘하고 녀살도 좋은 편인 나인데 꽃다발만큼은 이리 어색했을까싶은 생각이 든다. 허탈함에 웃음이 절로난다.

‘아내가 좋아하겠지?’

‘아내가 알려나?’

꽃다발,
과정이라는 선물

“아나, 오다 주셨다!”

ㅋㅋㅋㅋㅋㅋ



오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기억합니다.

그날을 추억합니다.

공유하는 기억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도 계속 함께 갈 수 있습니다.